

『經傳釋詞』에서의 工具書 활용*

－ 小學書를 중심으로

신원철**

-
1. 서론
 2. 공구서
 - 1) 공구서 특징
 - 2) 공구서로서의 소학서
 3. 『경전석사』에서의 공구서 활용
 - 1) 문자
 - 2) 음운
 - 3) 훈고
 - 4) 공구서 활용을 통한 『경전석사』의 의의
 4. 결론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經傳釋詞』에서 사용된 공구서를 소학서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학서는 언어학을 다루는 내용으로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배치한 책이다. 『경전석사』에서는 문자학의 『설문해자』와 『옥편』, 음운학의 『광운』과 『당운정』, 훈고학의 『이아』와 『광아』를 활용하여 훈석관계에 대한 근거, 방증 자료, 허사 사용의 실제 예 등에 활용하였다. 『경전석사』는 이

* 본 논문은 2014년 11월 8일 한국중국어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요지 발표를 한 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 사업단 HK 조교수 / E-mail: chimsky@paran.com

와 같은 소학서의 기반 하에 작성될 수 있었다.

주제어 : 『경전석사』, 공구서, 소학서, 문자학, 음운학, 훈고학, 훈석관계, 『설문해자』, 『이아』

1. 서론

본 논문은 『經傳釋詞』에서 사용된 공구서를 소학서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전석사』는 經傳에 있는 虛辭를 풀이하는 책으로 清代학자 王引之(1766-1834)가 지었다. 이 책에서는 허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여러 서적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十三經 등의 先秦 經傳과 『史記』, 『漢書』 등의 史書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說文解字』, 『玉篇』 등의 字書, 『廣韻』, 『集韻』 등의 韻書, 『爾雅』, 『廣雅』 등의 訓詁書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文字와 音韻, 訓詁를 나타내는 책을 小學書라 한다.¹⁾

양계초 지음, 전인영 옮김(2005)에 의하면 清代는 考證學이 발달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 考證이라는 것은 根據를 중시하고 그에 맞추어 분석, 판단함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근거로 삼고 있는 증거가 的確하고 치밀하면 할수록 학술적 가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

1) 소학(小學)의 명칭은 『漢書』 藝文志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옛날 사람은 여덟 살에 小學에 입학한다. 따라서 『周官』에서 말하는 保氏가 나라 안의 아이들을 기르는 일을 담당하면서 六書를 가르친다. 이는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로, 글자를 만드는 근본을 가리킨다. (古者八歲入小學, 故周官保氏掌養國子, 教之六書, 謂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 造字之本也.)” 여기서의 小學은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명칭에서, 그들이 배우는 학문으로, 나아가 그 중에서 문자와 음운, 훈고를 나타내는 기초 학문으로 의미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한 증거를 대량으로 정확하게 참고, 대조하기 위해서 공구서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현재 학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辭書類나 원문 대조 등 검색이 용이한 텍스트 자료도 이러한 공구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대 고증학의 精髓로 인정받는 왕인지의 『경전석사』가 어떠한 공구서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전의 예문을 검증하는지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경전석사』의 성격상 어학의 참고서인 소학서를 집중적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2. 공구서

일반적으로 공구서라 함은 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맞추어 정리해 놓은 책을 가리킨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여러 정보를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을 시기에는 하나의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자의 머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내거나²⁾ 책을 하나하나 뒤져서 찾을 수밖에 없다.

蔣禮鴻 著, 沈慶昊 譯(1992)에서는 공구서의 종류를 目錄, 表譜, 地方志, 叢書와 類書, 子書, 文書, 詞書, 注疏, 箋注, 索引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郭錫良 等 著, 김혜영 등 역(2016)에서는 공구서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詞典, 辭書³⁾를 포함하는 자음과 자의 검색, 단어와 典故 검색, 허사와 특수한 용어 검색 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공구서는 연구의 정확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만들

2) 이는 가장 빠른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기억의 왜곡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樸學大師의 글에서 종종 오류가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3) 앞에 등장한 詞書와 같다.

어진 것으로 좋은 공구서의 활용은 좋은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는 첩경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자서, 운서, 訓詁書에 해당하는 소학서를 다루고자 한다.

1) 공구서 특징

공구서는 자료를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모아 놓은 것이다. 이 때 기록되는 자료들은 자주 사용되거나 혹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구서는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활용을 위해서는 通覽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공구서는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검색을 목적으로 공구서에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배열 및 편찬 순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설문해자』, 『옥편』 등 자서는 部首⁴⁾를, 『광운』, 『집운』 등 운서는 韻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아』나 『광아』 등도 훈고 대상과 유사한 의미라는 나름의 기준⁵⁾으로 배열하여 찾는 데에 실마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수, 운, 의미 등의 배열 순서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순서를 외우

4) 『說文解字』는 ‘一’을 시작으로 ‘亥’를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설문해자·서(序)>에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부수간은 형태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자들을 묶어서 배열하였는데, 이는 연상작용 등을 통해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卷一에서 一 다음에 二, 그 후에 이를 형태의 부분으로 삼는 示, 중첩되는 三 형태의 부분으로 삼는 王, 유사한 玉, 이의 중첩인 玨 등으로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편』은 『설문해자』의 방식을 답습하였다.

5) 『이아』의 편명이라 할 수 있는 釋詁, 釋言, 釋訓 등을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 편을 지나 뒤에 이어지는 釋親, 釋宮 등은 확실히 부류를 구분해주는 요소로 역할할 수 있다. 『광아』는 『이아』의 체제를 바탕으로 어휘를 확장한 것이다.

는 것도 하나의 학습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구서 중에서 비교적 지금과 가까운 시기에 나온 『康熙字典』이나 『경전석사』에서는 부수나 성모에 대해 순서를 부여하여 배열하였다.⁶⁾

앞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공구서는 기존 존재하는 원자료에 대해 새로운 순서를 부여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한 자료 정리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연구되어 제시되는 부분, 즉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자료도 또한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구서 내부에는 증거와 주장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설문해자』에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글자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설문해자』에서만 등장할 뿐 기타 經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글자도 있다. 예를 들어 『설문해자』 卷一上 玉部 ‘璵(경)’ 자는 이후에 나타나는 『옥편』, 『광운』 등의 자전과 운서에는 모두 등장하지만, 실상 경전에 등장하지 않고, 『설문해자』 이후 人名 등에 사용된 글자이다. 이는 추측하건대 ‘敬’으로 발음하는 玉을 가리키는 글자이지만, 구체적인 형태가 기재되거나 묘사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訃愼이 만들어낸 글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본다면 공구서는 단순한 자료 모음집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 공구서를 소학서 위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6) 『강희자전』은 부수 내에서 획순으로 다시 배치하였고, 『경전석사』는 발음기관의 위치, 즉 牙腭에서 시작하여 脣腭으로 끝나는 것에 맞추어 배치하였다.

2) 공구서로서의 소학서

앞 절에서 공구서의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공구서로서의 소학서가 가지는 특징을 언급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소학이라는 명칭에 대한 유래를 언급하였지만, 소학은 문자학, 음운학, 훈고학 등을 포함하는 현재의 언어학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이들 학문은 감상과 기교 등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논리와 그 논리로 이루어진 체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러한 체계를 적용한 검색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된 소학서의 검색 방식은 바로 그 소학서의 핵심 논리와 일치한다.⁷⁾ 이는 기타 공구서가 시간 순서 등 일반적으로 익숙한 논리를 끌어다 인위적으로 체계를 부여, 배열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⁸⁾

공구서에는 여러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소학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학의 소학서에서도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닌, 음운과 훈고의 정보 또한 동반하여 제시한다. 『설문해자』에서는 글자의 字體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訓詁와 발음 정보, 심지어 경전 상에서의 용례를 제시하기도 한다.⁹⁾ 『광운』 등에서는 단순한 韻이 동일한 글자를 모아 놓은 것만이 아니라 해당 漢字에 대한 訓詁와 異體字 정보 또한 제시한

7) 『설문해자』의 부수는 漢字를 의미 계열로 나누는 기준이다. 『切韻』系 韻書에서의 韻에 의한 분류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야』에서도 同義詞 또는 대분류를 통해 한 부류로 묶어 놓았다는 것 또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각각의 기준은 그 책이 존재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논리라 할 수 있다.

8) 현재 작성, 유통하는 공구서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다. 예를 들어 옛날의 훈고를 모아 놓은 商務印書館의 『古訓彙纂』은 글자 검색을 위해서 部首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新華字典』은 분명 字典임에도 불구하고 部首가 아닌 拼音 순서를 위주로 한다. 이는 검색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규칙에 맞춘 결과이다.

9) 예를 들어 卷一下 艸部 ‘萑’字에 대해 “萑也。從艸推聲。『詩』曰：‘中谷有萑。’”로 풀이하였다. 이 중 ‘萑(환)’은 풀의 종류를 나타낸다. ‘從艸’는 이 글자가 속한 부수가 ‘艸’임을, ‘推聲’은 이 글자의 발음이 ‘推’임을 보인다. 뒤에 나온 『詩』는 『毛詩·王風·中谷有萑』의 반복되는 구절로, 해당 글자가 『시경』에서 쓰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다.¹⁰⁾ 이는 문자, 음운, 훈고라는 각각의 소학적 정보를 각각의 소학서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 제시하는 것으로, 정보의 종합적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소학서는 모두 해당 소학서가 추구하는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나 용법을 지시하거나 드러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허사에 대한 용법 등을 정리한 『경전석사』에서 공구서로서 소학서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경전석사』에서 공구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3. 『경전석사』에서의 공구서 활용

『경전석사』에서는 다양한 공구서를 활용하여 훈고 설명의 예를 들거나 예문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다.

왕인지는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사, 즉 허사의 해석은 『이아』에서 시작하였다.(語詞之釋, 肇於爾雅.)” 이는 허사에 대해서 이미 『이아』에서 뜻풀이한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완원(阮元, 1764-1849) 또한 『경전석사』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아』와 『설문해자』 두 책에 의지해서 옛 성현의 經과 傳의 語氣(詞氣)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옛날의 뜻에 가깝다.(賴爾雅說文二書, 解說古聖賢經傳之詞氣最爲近古.)” 이 또한 허사 해석에서 『이아』와 『설문해자』가 해석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전석사』를

10) 예를 들어 『광운』 卷二 下平聲 ‘前’자에 대해 뜻으로는 ‘先也’를 들고 그에 대한 반절로 昨先切을 제시하였다. 그 후에 자신을 포함한 여섯 개의 동일한 발음을 가진 자의 있음을 숫자 ‘六’으로 나타내고, 바로 이어 ‘毒’자를 들면서 이것이 ‘前’자의 고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구성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공구서, 특히 소학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공구서 중에서 소학서를 문자, 음운, 훈고로 각기 구분하여 그 현황과 실제 적용 예를 살펴보고자 하고 이를 통해 공구서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문자

여기에서 언급하는 문자와 관련한 문자학은 협의의 문자학을 가리킨다.¹¹⁾ 『경전석사』에서는 문자 전문서인 『설문해자』와 『옥편』을 이용하여 허사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說文解字』卷五上 兮部에서 말하였다. “乎, 語之餘也.”(‘乎’는 허사 중에 여운을 나타내는 것이다.)(『經傳釋詞』卷四 ‘乎’)
『玉篇』卷三 人部에서 말하였다. “以, 爲也.”(『經傳釋詞』卷一 ‘以’)

위의 예는 각 허사의 다양한 의미 중 해당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증거로서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설문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 중 특히 『설문해자』에서 ‘詞’로 설명한 내용에 대해 『경전석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경전석사』가 허사에 대해 풀이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예이다.

『說文解字』卷五上 曰部에서 말하였다. “曰, 詞也.”(『經傳釋詞』卷二 ‘曰’)

11) 광의의 문자학은 이하 거론할 음운과 훈고를 포함한 소학 전반을 가리킨다. 즉 소학의 다른 이름이다. 협의의 문자학은 문자의 형태 등 구조, 서체 등으로 한정한다.

『說文解字』卷八下 欠部에서 말하였다. “吹, 詮詞也.”¹²⁾(『經傳釋詞』卷二 ‘吹’)

이러한 설명 방식은 『설문해자』의 본래 설명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본래 『설문해자』는 글자의 형태나 구성 방식에 근거하여 해당 글자의 ‘본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허사는 글자의 형태나 구성 방식에서 의미가 드러날 수 없는引申이나 假借 등의 변화를 거친 후에 한자에 반영되어 문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사에 대한 설명은 『설문해자』에서 등장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자의 형태를 귀납하여 정리한 문자학 공구서를 허사 연구에 이용하는 부분은 분명 한계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완원의 『경전석사』 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언급하였다. 그는 “그렇지만 『설문해자』는 단지 만들어진 글자에 대해서만 풀이하였고 가차로 쓰인 글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然『說文』惟解特造之字, 而不及假借之字.)”고 하여 『설문해자』의 의미 풀이는 글자의 형태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뜻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완원의 설명 중 가차로 쓰인 글자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 중에서 ‘而’에 대해서 보자면, 『설문해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須也. 象形.(수염이다. 상형자이다.)” 이러한 설명으로는 허사 ‘而’의 접속사로서의 기능이나 내용을 살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허사에 대한 설명은 몇몇 만들어진 글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설명의 대표적인 것이 허사 ‘曰’에 대한 『설문해자』의 풀이 ‘訶’이다.¹³⁾

정리하자면 『경전석사』에서는 『설문해자』에서 ‘訶’로 뜻풀이한 것을

12) ‘詮詞’는 助詞와 같다.

13) ‘訶’에 대한 고찰은 엄정삼(2013) 참조.

허사에 대한 설명으로 보고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음운학

『경전석사』에서는 『광운』등 운서를 몇몇 허사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이용하였다. 이는 『광운』 등의 韻書에도 해당 글자에 대한 훈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廣韻』 去聲 四十一 漾에서 말하였다. “況, 矧也”(『經傳釋詞』 卷四 ‘況’)

이 때 용법은 앞에서 언급한 『설문해자』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설문해자』에서 모든 허사를 언급하지 못하고 본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허사로 설명하지 않았다. 『설문해자』 卷十一 上 水部 ‘況’ 자에서는 이를 ‘차가운 물[寒水]’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경전석사』에서는 허사의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광운』의 예를 가져다 풀이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광운』에는 『경전석사』에 인용된 내용뿐만 아니라 『설문해자』의 설명 또한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광운』은 하나의 의미만을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뜻풀이를 수록하고 있어 단지 운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공구서로 쓰일 수 있다. 『경전석사』에서의 인용 또한 그러한 쓰임 중의 하나이다.

그 외에도 顧炎武가 정리한 『唐韻正』을 이용해 ‘有’와 ‘以’의 훈석 관계를 증명하였다. 『경전석사』 卷六 ‘能’ 항목에서 “能은 而와 같다. 能과 而는 옛소리(古聲)가 서로 비슷하다.(能, 猶而也, 能與而古聲相近.)”라는 설명에서 왕인지는 自注를 부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설명은 『唐

韻正』을 볼 것.(說見『唐韻正』.)” 고염무의 『당운정』 卷六 下平聲 十七 登의 ‘能’ 항목을 참조하면, ‘能’의 옛 음이 ‘奴來反’과 ‘奴代反’ 두 가지로 여러 판본의 예를 통해 이 ‘能’이 ‘耐’와 발음이 같고 통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왕인지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能’이 ‘耐’의 聲符인 ‘而’와 옛 소리에서 비슷하다고 유추하였고, 이를 허사 연구에 반영하여 설명을 추가하였다.

앞에서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경전석사』에서 운서라는 궁구서를 통해 허사를 증명할 때에는 운서의 핵심 논리인 운의 배치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운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의미 정보를 통한 방증을 이용하는 것이고, 현재나 통용되는 음운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음의 정보를 문헌상에서 밝혀낸 후 이를 적용시켰다. 이는 운모를 배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청대 劉淇의 『助字辨略』과는 다른 점으로, 운서의 체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전석사』는 聲母를 중심으로 허사를 배열하는 데에 이용하였고, 또한 因聲求義의 방식에서 성모를 이용하여 의미적 유사성을 밝혀내는 데에 이용하였다.¹⁴⁾ 따라서 한자 음운 체계에서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韻을 기준으로 삼는 운서이기 때문에 『경전석사』에서는 운서 자체의 핵심 논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3) 훈고

『경전석사』는 허사의 기능과 용법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훈고를 기록한 『이아』, 『광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아』나 『광아』는 諸經에 수록된 어휘에 대한 훈고를 集成한 책이기 때문에 그 속에

14) 이에 대해서는 신원철(2013) 참조.

허사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동의어를 묶는 것으로 그 체계를 갖추면서 해당 한자가 허사인지 실사인지 구별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원은 이에 대해 『경전석사』 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아』는 풀이한 것이 완전하지 않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한다.(爾雅所釋未全, 讀者多誤.)” 이러한 문제는 허사의 설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아』 釋言의 “試, 式, 用也.”라는 항목에서 ‘式’은 『경전석사』에 따르면 허사로서의 ‘用’, 즉 ‘以’와 동일한 용법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아』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試’ 또한 허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 ‘試’의 뜻풀이로 사용하는 ‘用’은 허사가 아닌 사용을 나타내는 실사로 볼 수 있다. ‘試’의 주요 의미가 바로 ‘임용하다, 사용하다’ 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아』에서 동일한 항목에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의미로 일관하여 해석할 수 없고, 여러 항목 중에서 허사로 파악되는 것을 추려야 한다.

『이아』와 『광아』의 釋詁篇, 釋言篇 등에서의 여러 훈고 설명이 『경전석사』에서 허사를 설명하는 데에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粵、于、爰、曰也。”(『爾雅』釋詁), “猷、若也。”(『爾雅』釋言)
 “由、以、用也。”(『廣雅』釋詁), “於、于也。”(『廣雅』釋言)

『경전석사』에서 『이아』를 인용할 때, 『이아』에 수록된 篇에 따라 해당 자료가 사용되는 부분이 설명과 예문 부분으로 나뉘는 점을 볼 수 있다. 『이아』의 앞부분에 수록된 篇인 釋詁, 釋言, 釋訓 등의 편에서의 예는 설명을 위한 증거로서 인용되지만, 그 이후 釋天 이하 편에서 나온

예는 해당 허사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으로서 활용된다. 다음 예는 그 중 하나의 예이다.

“泉一見一否爲灇, 井一有水一無水爲灇汙.(샘 중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灇(침)이라 하고, 우물 중에서 물이 있다가 물이 없는 것을 灇汙이라고 한다.)”(『經傳釋詞』 卷三 ‘一’)

위의 예문은 『이아』 釋水편에 나오는 예이다. 『경전석사』에서 이 예문을 인용한 것은 ‘一’이 허사로 쓰일 때의 의미를 드러내는, 즉 표제어의 훈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一’이 허사로서 ‘或’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예로서 제시된 것이다.

『광아』는 『이아』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후 전달 과정에서 佚失되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어 공구서로서 정확한 고증과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다른 문헌을 참조하여 보충하고 설명을 추가한 것이 바로 왕인지의 부친 王念孫(1744-1832)의 『廣雅疏證』이다. 이러한 校勘 및 疏證 작업을 거친 이후의 『광아』를 왕인지는 허사의 용법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다음 예를 보자.

『廣雅』 釋詁에서 말하였다. “以, 與也.”(『經傳釋詞』 卷一 ‘與’)

이 예는 『광아소증』 이전의 『광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 왕념손은 『광아소증』에서 “以, 予也.”로 되어 있는 본문에 予 아래에 ‘與’를 注로 추가하였는데¹⁵⁾, 이후 筆寫者가 두 개의 음이 같다는 이유

15) 본래는 “歛, 欽, 匄, 貸, 誣, 誣, 授, 施, 裨, 稟, 付, 載, 埤, 分, 越, 以, 乞, 遺, 予與也.”로 되었다고 본 것이다. 『광아소증』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광아』의 각 판본에는 ‘予’자 아래에 ‘與’자가 없다. 이는 ‘予’와 ‘與’ 두 글자의 발음이 같아서, 옮겨 적는 사람이 ‘與’자를 생략한 것일 뿐이다.(各本子下皆無與字, 此因予與二字同聲, 故

로 ‘與’를 생략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경전석사』에서는 소학서를 이용하여 허사에 대한 설명의 증거로 삼았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경전석사』에서의 여러 설명은 이미 다른 소학서에서 언급한 것이고, 『경전석사』에서는 이를 諸經傳에 적용, 검토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공구서 활용을 통한 『경전석사』의 의의

『경전석사』에서 공구서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용도는 訓釋關係에 대한 근거로서의 용도이다. 이에 대한 예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인용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전 문헌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두 번째 용도는 인용된 문헌 등의 다른 표기, 또는 방증 자료로서의 용도이다. 이러한 부분은 판본에서의 차이를 제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데에 사용된다. 특히 『經典釋文』¹⁶⁾ 등에서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설명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전석사』 卷一 ‘於’ 항목에서 『詩』大雅·靈臺의 “於論鼓鍾, 於樂辟廱.(북과 종을 잘 조율하고, 辟廱(왕이 교화를 펼치는 곳)을 즐겁게 하네.)”에 대해 왕인지는 다음과 같이 注를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경전석문』에서는 “於, 音烏. 鄭如字.(於是 音を ‘烏’라고 한다. 鄭玄은 如字라 하였다.)”, 『毛詩正義』에서는 毛詩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또한 如字로 풀었다.¹⁷⁾ 지금은 『정의』를 따른다.(『釋文』, 於, 音烏. 鄭如

傳寫脫去與字耳.)”

16) 『경전석문』은 음운과 훈고 양쪽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공구서로, 남북조 시기 음의(音義) 연구가 활발한 이후 수(隋)나라를 거쳐 당(唐) 초기 육원량(陸元朗, 550?-630, 자(字)는 덕명(德明))에 의해 편찬되었다.

字, 『正義』述毛亦如字, 今從『正義』.)

여기에서는 비록 『경전석문』이 들고 있는 예를 따르지 않고 『모시정의』의 예를 채택했지만, 이러한 비교를 통해 그 正誤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이처럼 방증자료의 용도로서도 공구서로서의 소학서가 사용되었다.

세 번째 용도는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설명한 허사 사용의 실제 예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는 『경전석사』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經傳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이아』 석수의 허사 ‘一’에 대한 예문이 이와 같은 예이다. 그 외에도 『경전석사』 卷八 ‘卽’ 항목에서 『이아』 釋地의 예문인 “西方有比肩獸焉, 與邛邛距虛比, 爲邛邛距虛齧甘草, 卽有難, 邛邛距虛負而走(서쪽에는 比肩獸가 있다. 邛邛距虛와 나란히 하면서 공공거허를 위해 甘草를 갉아댄다. 만약 위태로운 일이 있다면 邛邛距虛가 업고서 뛴다.)”를 들었는데, 이 예는 이 중 ‘卽’자가 만약을 나타내는 ‘若’으로 쓰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이미 언급한바, 『경전석사』의 성립에 공구서, 특히 소학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경전석사』의 여러 항목에 대한 근거는 소학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들의 선행 연구와 정리를 통해 『경전석사』가 성립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전석사』가 단순한 사례나 용례 모음집이 아닌 것은, 그 외에도 경전에 나타나는 여러 예문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거쳐서 수록하고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17) 孔穎達의 疏에서 “於是作樂”(이 때에 음악을 지었다.)이라 하였으니, 於를 如字로 본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경전석사』에서 사용된 공구서 중 소학서를 중심으로 사용의 유형을 문자, 음운, 훈고 등으로 나누어 분석, 고찰하였다.

공구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검색을 위해 자료를 가공하고 일정한 체계를 통해 재배치하여 활용에 편리함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공구서로서의 소학서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언어학이라 할 수 있는 소학을 다루는 책으로, 문자, 음운, 훈고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아울러 소학서에서 검색을 위한 체계의 배열과 그 책이 추구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 이러한 점에 검색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점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경전석사』에서의 공구서 활용 부분에서는 문자학에서는 『설문해자』와 『옥편』, 음운학에서는 『광운』과 『당운정』, 훈고학에서는 『이아』와 『광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적용 방식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경전석문』 등도 소학서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공구서로서의 소학서의 용도는 훈석관계에 대한 근거, 방증 자료, 허사 사용의 실제 예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전석사』의 성립에 있어 소학서는 그 기초이자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清〕王引之(2000), 『經傳釋詞』, 高郵王氏四種之四, 江蘇古籍出版社.

〔東漢〕許慎 撰, 〔清〕段玉裁 注(1981),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梁〕顧野王(1966), 『玉篇』, 臺灣中華書局.
 〔魏〕張揖 撰, 〔唐〕曹憲 音(1985), 『廣雅』, 中華書局.
 周祖謨(1988), 『廣韻校本』, 中華書局.
 〔宋〕丁度 等撰(1968), 『集韻』,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7年.
 〔清〕王念孫(2000), 『廣雅疏證』 高郵王氏四種之一, 江蘇古籍出版社.
 李學勤 主編(2000), 『爾雅注疏』, 北京大學出版社.

〈연구논저〉

郭錫良等 著, 김혜영 등 譯(2012), 『고대중국어』, 역락.
 蔣禮鴻 著, 沈慶吳 譯(1992), 『목록학과 공구서』, 이회문화사.
 양계초(梁啓超) 지음, 전인영 옮김(2005), 『청대학술개론(중국 근대의 지식인)』,
 해안.
 신원철(2013), 「『經傳釋詞』에 나타난 因聲求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엄정삼(2013), 「『說文解字』의 詞論 연구 - '詞'자 풀이에 드러난 '意'와 '言'의 관
 계」, 『중국문학』 76집.

The Usage of Reference Books
in 『Jingzhuanshici(經傳釋詞, abbr. Shici,)』
- Mainly on xiaoxueshu(小學書, linguistics books)

Shin, Wonchul*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usage of reference books in Shici, mainly on xiaoxueshu. Xiaoxueshu means the reference books about linguistics which are rearranged to search. 『Shuowenjiezi(說文解字)』, 『Yupian(玉篇)』 in grammatology, 『Guangyun(廣韻)』, 『Tangyunzheng(唐韻正)』 in phonology, 『Erya(爾雅)』, 『Guangya(廣雅)』 in semantics are used in Shici as an evidence of explanation, supporting evidence and practical examples of the usage of a function word. Shici were able to be written on the basis of these reference books.

Key Words

『Jingzhuanshici』, reference books, xiaoxueshu, grammatology, phonology, semantics, explanation, 『Shuowenjiezi』, 『Erya』

논문접수일: 2020.1.23, 심사완료일: 2020.2.10, 게재확정일: 2020.2.13

* Anyang University HK+ Project HK assistant professor / E-mail: chimsky@paran.com